

아시아태평양전쟁과 부산의 군사기지화*

김 윤 미**

| 목 차 |

- I. 머리말
- II. 부산항 방어를 위한 부산요새사령부 설치
- III. 부산 주둔 일본군의 현황과 역할
- IV. 맺음말

| 국문초록 |

이 글에서는 1937년 중일전쟁 전후부터 1945년까지 부산이 군사기지화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부산에는 청일전쟁시기 일본군 부산병참부가 설립된 이후, 1945년까지 일본과 대륙의 군사수송과 병참지 역할을 했다. 일본군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일본과 대륙을 잇는 수송이 중요했다. 이에 따라 병참선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항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부산항에 요새를 건설하고 병력을 배치했다.

부산에 주둔한 일본군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부산요새사령부를 떠올린다. 이에 따라 요새의 의미, 요새사령부의 임무, 부산요새사령부의 설치 배경과 역할을 분석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부산에 주둔한 일본군의 현황과 역할을 고찰했다.

* 본 논문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한 “일제강점기, 군사 요새로 변해버린 부산을 바로 보다”(2021년 10월 29일)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부경대학교 해양인문학연구소 HK 연구교수 / history-person@hanmail.net

부산에 주둔한 일본군과 군사시설은 일본과 대륙을 연결하는 대한해협과 부산항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 1924년 부산항 방어를 위한 요새가 건설된 후, 1937년을 전후로 부산에 대규모 요새와 군사시설 구축이 이어졌다. 1941년 진해만요새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산요새사령부로 개칭한 것을 시작으로 1945년까지 1만여 명의 군인들이 부산에 주둔했다. 이에 따라 군사구역은 계속 해서 확장되었고, 부산은 군사기지화되어 갔다.

주제어 : 부산요새사령부, 전쟁유적, 일본군, 러일전쟁, 중일전쟁, 도시계획

I. 머리말

일본의 조선 침략과 전쟁의 선봉에는 일본군이 있었다. 일본군은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는데 일본의 물리적 기반이기도 했다. 이를 보여 주는 군사시설은 전국에 산재해 있다. 대규모로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는 용산과 진해, 제주도과 전남 해안 일대, 부산, 부평 등이다. 용산과 진해는 가장 먼저 일본군이 침탈한 곳이다. 용산은 일본 육군의 본거지로, 진해는 일본 해군의 본거지로 이용되었다. 용산은 미군기지로 오랫동안 사용되다 반환과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진해는 일본기지에 한국 해군이 주둔하고 있어 중첩된 공간의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제주도와 전남 해안 일대는 미군의 상륙에 대비하기 위해 해안과 산중턱에 여러 형태의 동굴진지가 구축되어 있다. 미쓰비시(三菱) 등 군수산업 단지를 이루었던 부평은 무기와 잠수함 등을 생산하는 조병창이 조성되었다. 미군은 이곳을 캠프마켓으로 오랫동안 점유하다 최근 철수를 하며 반환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에는 복합적인 일본군 군사시설이 존재했다. 장자등과 영도의 포진지, 부산 시내 곳곳의 동굴들, 항공부대가 주둔했던 해운

대비행장과 김해비행장, 코모도호텔 자리에 있었던 부산요새사령부, 매축지마을의 일본군 마계장, 수송부대 주둔지였던 감만부두 등은 당시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그 외는 대부분 도시개발 속에서 사라졌다.

일본군 군사시설에 대한 조사는 연구는 정부기관과 지역단체에서 시작했다. 문화재청은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한국군과 미군의 주둔지, 국방부 소유의 부지에 건립되어 있는 일본군 시설물 조사를 시행했다.¹⁾ 곧 이어 문화재청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일본군과 전쟁유적 조사를 진행했다.²⁾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강제동원과 관련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군사시설에 대한 조사를 병행했다.³⁾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간행한 조사보고서도 주목된다.⁴⁾ 민간연구단체인 강제동원&평화연구회에서도 군사시설에 관한 연구를 계속한다.⁵⁾ 일본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군사시설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⁵⁾

-
- 1) 문화재청, 『군 주둔지 내 근대건축·시설 일제조사 용역 보고서』, 2011; 문화재청, 『2014 군부대 문화재 조사보고서-육군·공군 모니터링』, 2014.
 - 2) 문화재청, 『태평양 전쟁 유적(부산·경남·전남 지역) 일제조사 연구용역』, 2013; 『태평양 전쟁 유적(대구·경북·충북지역) 일제조사 연구용역』, 2014; 『태평양전쟁유적 일제조사 연구용역(대전·충남·전북·도서 지역)』, 2015.
 -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거문도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주민 강제동원에 관한 조사』, 2006.; 『제주도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노무·병력동원에 관한 조사』, 2007.; 『일제시기 조선 내 군사시설 조사』, 2008.
 - 3) 국립강제동원역사관, 『강제동원의 역사와 현장: 부산편』, 2016; 『강제동원의 역사와 현장: 서부경남』, 2017.
 - 4) 정혜경, 『우리 마을 속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광주광역시』, 선인, 2014; 『우리 지역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활용 -방안과 사례』, 선인, 2018. 김현석, 『우리 마을 속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인천광역시 부평구』, 선인, 2019; 『우리 마을 속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인천광역시 동구』, 선인, 2020.
 - 5) 일본에서는 전쟁유적 보존운동을 주관하는 대표 기관으로 1997년 탄생한 (사)전쟁유적보존전국네트워크가 있다. 각지의 전쟁유적보존단체, 문화재보존전국협의회, 역사교육자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단체와 개인이 모여 결성했다. 유적 조사연구, 보존운동, 평화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간행하고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http://senseki-net.on.coocan.jp/>).

지역의 군사시설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한 곳은 제주도였다.⁶⁾ 다음으로 미군의 철수와 이전으로 지역에서는 부지 반환과 활용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부산의 하야리아부대 주둔지⁷⁾, 용산의 미군기지⁸⁾, 부평의 캠프마켓⁹⁾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부산은 이미 부산시민공원으로 개방되었고, 용산과 부평은 지자체의 지원으로 전면조사와 연구가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여수요새사령부가 있었던 여수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조사 움직임이 거론되고 있다.¹⁰⁾ 수십 개의 대형 동굴이 있는 영동은 지자체의 조사 보고서가 있다.¹¹⁾ 이외에도 개인의 연구성

- 6) 신주백, 「1945년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역사와 현실』 49, 2003. 塚崎昌之, 「제주도에서의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제주도와 거대 군사 지하시설」, 『4·3과 역사』 4, 2004. ; 「해방 직후 제주도의 정치 정세」,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2007. 이병례, 「일제말기 노동력동원의 일상화와 민중의 대응방식: 제주도 주민동원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7, 2007. 조성운·지영임·허호준, 『빼앗긴 시대 빼앗긴 시절』, 선인, 200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일제하 제주도 주둔 일본군 군사유적지 현장 조사 보고서 1』, 보고서, 2008. 조성운 외, 『일제 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보고서, 2008. 김원복, 「아시아 태평양전쟁 말기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7) 차철욱, 「하야리아부대 주변 마을 주민들의 역사적 경험과 코컬리티」, 『지역과역사』 28, 2011. 안미정, 「부산 미군 하야리아부대의 공간적 변용과 의미」, 『지방사와 지방문화』 16-1, 2013. 부산광역시청, 『부산시민공원역사관연구총서 I-미국립문서관리청 소장 부산 사진자료집』,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연구총서 II-일본 방위성 소장 일본군용지 설계 자료집』,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연구총서 III-일본 방위성 소장 부산주둔 일본군 자료집』, 신우정판사, 2013.
- 8) 신주백, 「용산과 일본군 용산기지의 변화(1884~1945)」, 『서울학연구』 29, 2007. 김천수, 「일제시기 용산기지 형성에 관한 기초 연구」, 『향토서울』 87, 2014. 문화재청, 『군 주둔지 내 근대건축 시설 일제조사 용역보고서』, 2011. 김중현, 「19C에서 20C까지 한국을 둘러싼 세계 역사의 프리즘 용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학술총서』,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2014.
- 9) 한만승, 『캠프 마켓 (아픈 희망의 역사 부평미군기지를 말한다)』, 봉구네책방. 2013. 부평문화원, 『헬로우 에스킵 시티, 굿바이 캠프 마켓-부평미군기지와 부평 사람들이 이야기』, 2020. 이상의·인천문화재단, 『부영공원 지하시설물 기초조사연구 결과보고』, 2020.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 1~3, 2021.
- 10) 주철희, 『일제강점기 여수를 말한다: 여수에 남겨진 일제 군사기지 탐사보고』, 흐름, 2015.
- 11) 영동군 농정과, 『매천리 토굴현황 조사결과 보고』, 1998.

과물이 출간되고 있다.¹²⁾

부산의 일본군 군사기지에 대한 연구는 건축학계와 역사학계의 연구로 대별된다. 먼저 가덕도 외양포기지를 비롯한 요새와 포진지에 대한 실측과 실태 조사가 건축사적으로 진행되었다.¹³⁾ 곧이어 역사학계에서도 부산의 군사적 성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부산은 청일전쟁시기 일본군 부산병참부가 설립된 이후, 1945년까지 임시병참사령부가 설치되어 일본과 대륙의 군사수송과 병참지 역할을 했다.¹⁴⁾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군은 100만명이 넘었고 1941년에는 210만명이 넘었다. 일본군은 단시기에 전쟁을 치르는 속전속결주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일본과 대륙을 잇는 수송이 중요했다. 부산항을 통해 항로와 철도를 연결하여 교통망을 만들고 병참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부산에 요새를 건설하고 병력을 배치했다.¹⁵⁾

부산의 군사적 기능 강화란 항구를 확장하고, 항만시설을 갖추며, 창고와 숙소 등의 임시공간을 확보해가는 과정이었다. 부산에는 특별한 상주부대가 없어 일본군 영구주둔지가 있지 않았다. 대신 병참과 수송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이 필요했다.¹⁶⁾ 일본군은 1934년 시작된 부산시

12) 이완희, 『한반도는 일제의 군사요새였다』, 나남. 2014. 정명섭 외, 『일제의 흔적을 걷다』, 더난 출판, 2016.

13) 이지영·서치상, 「가덕도 외양포의 일본군사시설에 관한 연구-군막사 및 포대진지의 구축과정과 건축특성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19-3, 2010. 강영조, 「근대 부산에서 대정공원의 성립 과정과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3-2, 2013. 김영분·김기수, 「近代期 釜山 主要建築物의 立地 및 計劃의 特性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지』 29-3, 2013. 박효민·박재홍·김준·유재우, 「부산 피난이주지 소막마울의 형성과정과 변화특성」, 『대한건축학회지』 30-9, 2014.

14) 坂本悠一, 「植民地期 朝鮮鐵道에 있어서 軍事輸送-시베리아 출병, 만주사변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28, 2006 ; 「戰時體制期における近代都市釜山開發の植民地的特性」, 『經營經濟論集』 18-1, 2011.

15) 김윤미, 「일제시기 일본군의 방어체계와 부산의 요새」, 『군사』 85. 2012.

16) 김윤미, 「‘조선군 임시병참사령부’의 부산 숙영 시행과 지역 변화」, 『역사와경계』 109, 2018.

가지계획에 적극 개입하여 부산의 확장에 따른 상당 부분의 공간을 군용지로 선점할 수 있었다.¹⁷⁾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부산이 군사기지화 되는 1940년대에 집중했다.¹⁸⁾ 부산에 주둔한 일본군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부산요새사령부에 대한 검토부터 시작해보고자 한다. 요새란 무엇이고, 요새사령부의 임무는 무엇인지, 부산에 주둔했던 부산요새사령부의 설치 배경과 역할을 분석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부산에 군사력이 집중 강화된 아시아태평양전쟁, 특히 1945년 본토결전(本土決戰)에¹⁹⁾ 대비해 배치한 일본군의 현황과 역할에 대해서 고찰해볼 것이다.

Ⅱ. 부산항 방어를 위한 부산요새사령부 설치

1. 진해만요새사령부와 요새지대 설정

한반도에 일본 군사기지가 처음 구축된 것은 러일전쟁 시기였다. 일본 해군기지는 거제도에, 일본 육군은 가덕도와 원산에 근거지를 세웠

17) 김경남, 「일제말 전시체제가 부산 시가지계획의 전개와 그 특질」, 『지역과 역사』 20, 2007; 「1930·40년대 전시체제가 부산 시가지계획의 군사적 성격」, 『한일관계사연구』 34, 2009.

18) 부산항 건설과 일본군 관련성, 부산의 철도부설과 일본군 개입 등 구체적인 사례 연구들 이미 진행되었다.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인호, 「1945년 부산지역의 도시疏開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1, 2004.; 노기영, 「日帝末 戰時海運과 釜山港 關聯 資料紹介」, 『港都釜山』 21, 2005.; 차철욱, 「일제시대 부산항 설비사업과 사회적 의미」, 『한국학논총』 33, 2010. 배석만, 「1930년대 부산 赤崎灣 매축 연구」, 『향도부산』 28, 2012.; 「일제말 赤崎灣 추가 매축 연구」, 『향도부산』 29, 2013. 전성현, 「일제말기 臨港鐵道와 식민성」, 『한국민족문화』 67, 2018.; 「일제강점기 부산 유곽의 실태와 일본군과의 관련성」, 『역사와 경계』 109, 2018.

19) 신주백, 「1945년 한반도 남서해안에서의 ‘본토결전’ 준비와 부산 여수의 일본군 시설지 현황」, 『軍史』 70, 2009.

다. 일본 육군은 1904년 8월 제3임시축성단을 진해만의 가덕도와 저도에 파견하여 요새구축을 시작하여 4개월 만에 병영을 완성했다. 외양포에 축성한 요새는 해안요새로 군항, 요항, 해군근거지, 연안도시, 교통요지, 해협, 중요 항만 등 국방상 중요한 지역에 건설하는 군주둔지의 하나였다.²⁰⁾

일본군은 가덕도에 요새와 막사 등이 완료되자 즉시 11월 27일 진해만요새포병대대 편성을 명령했다.²¹⁾ 1905년 4월 일본 육군은 우수 제4사단에서 진해만요새사령부를 편성하고 5월 7일 외양포에 배치하여 ‘주차군사령관’의 예하로 편성했다. 그러나 방비에 관해서는 해군 소장보임인 ‘진해만 전시기획관’의 지휘를 받았다.²²⁾ 요새사령부 예하에는 요새병원도 편성되었다. 외양포 포대 구축을 완료한 후 1905년 2월 영흥만에 포대를 구축했고,²³⁾ 5월 ‘영흥만요새사령부’와 영흥만요새포병대대 등을 편성했다.²⁴⁾ 1906년 4월 1일부터 진해만사령부와 영흥만요새사령부는 평시편제로 이행했다.

가덕도 외에 부산에 요새가 건설된 것은 1924년이였다. 진해만요새사령부에 소속된 요새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군축체제로 전환되면서 일본의 군사력도 재편되었다. ‘태평양방비체제의 전환’에 따라

20) 淨法寺朝美, 『日本築城史』, 原書房(東京), 1971, 94쪽.

21) 진해만요새포병대대는 1906년 4월 진해만요새포병대, 1907년 2월 진해만요새포병대대, 1907년 10월 진해만중포병대대, 1920년 12월 마산중포병대대, 1936년 6월 마산중포병연대, 1941년 7월 진해만요새중포병연대, 1942년 7월 부산요새중포병연대와 8월 마산중포병연대보충대로 재편되었다.(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馬山・永興灣・羅津・麗水 重砲兵聯隊史』, 千創(東京), 1999, 참고.)

22) 러일전쟁은 대한해협의 해전이 가장 상징적인 전투로 기록된다. 일본군은 대한해협의 해전을 상정하고 육군과 해군이 합동훈련을 여러차례 시행하면서 준비했다. (김윤미, 『일본 해군의 남해안 조사와 러일전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9, 2019, 참고.)

23) 러일전쟁 시기 영흥만의 군사기지화에 관해서는 加藤圭木, 『日露戦争以降の朝鮮における軍事基地建設と地域—永興灣を對象として—』(一橋大学大学院社会学研究科編, 『一橋社会科学』 5, 2013.)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24) 임종국, 『日本軍の朝鮮侵略史』 I, 일월서각, 1989, 137~139쪽.

해군함선이 감축되고, 중요항로에는 요새를 건설하여 방어체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1923년 3월 참모본부에서 <조선해협요새계건설요령서>를 작성했다.²⁵⁾ 조선해협요새계인 진해만·부산·쓰시마(對馬島)-이끼(壹岐)에 요새를 구축하여 조선해협의 적함선 출몰을 방어한다는 구상이었다. 진해만요새는 영도·장자등·장승포 3곳에 포대 설치를 계획했지만, 1923년 장자등 포대를 먼저 축성했다.²⁶⁾

요새를 지휘하는 요새사령부는 1895년 3월 30일 칙령 제39호로 결정된 <요새사령부조례(要塞司令部條例)>에 따라 편성되었다. 요새사령부조례에 의하면 요새는 영구방어시설로 분류되고, 규모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각 요새마다 하나의 사령부를 설치했다. 평시에 요새사령부는 요새를 방어할 계획, 방어용 재료건축물과 병기 등 군수품을 정비하며, 지방관과 협의를 통해 전쟁에 대비한 군대 숙영급여 및 주민공공의 보안에 관한 방안을 계획한다. 이러한 업무는 매년 4월 육군 참모총장과 해군 군령부장에게 보고한다.²⁷⁾ 즉 요새사령부는 평시(平時)에는 행정기관의 기능을 하지만 전시(戰時) 혹은 전비(戰備)명령이²⁸⁾ 내려지면 요새 내의 부대를 지휘하는 것이다.

요새지대로 설정된다는 것은 일본군의 관리체계에 들어가며 여러 방면에서 제한과 통제가 시작됨을 의미했다. 즉 군사구역에 그 지역이 설

25)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馬山·永興灣·羅津·麗水 重砲兵聯隊史』, 千創(東京), 1999, 82~83쪽.

26) 朝鮮軍司令部, 『朝鮮軍歷史』4, 1932, 128쪽.(陸軍省, 『朝鮮軍歷史(第4卷)送付の件』, 『密大日記』, 1933, 防衛省防衛研究所(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1004005200).)

27) 内閣, 『御署名原本·明治二十八年·勅令第三十九号·要塞司令部條例』, 『御署名原本·明治二十八年·勅令第三十九号·要塞司令部條例』, 1895, 国立公文書館(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A03020198800).

28) 전비는 3종으로 구분한다. 응급전비(緊急戰備)는 평시 명령으로 임시적인 전환을 취한다. 준전비(準戰備)는 해상에서 발생할 함정의 전투를 대비한다. 본전비(本戰備)는 적이 상륙하거나 육상에서 전투를 대비한다.(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馬山·永興灣·羅津·麗水 重砲兵聯隊史』, 千創(東京), 1999, 93쪽.)

정되면 지역의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권은 요새사령관 혹은 육군대신에게 있었다. 군사기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인을 대상으로 군기보호법이 적용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요새지대법이 시행되었다.

일본은 1898년 요새지대법(要塞地帶法)을 제정 공포했다.²⁹⁾ 본문 제1조~제29조, 부칙 제30~제31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은 군항규칙과 요항규칙의 효력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제3조에 따르면 ‘요새지대는 육지와 해면에 관계 없이 3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 표식을 위해 표석, 표목, 표찰을 세우도록 했다. 단 육군방어조영물지대와 해군방어조영물의 지대가 겹치거나, 혹은 육군용지가 군항요항 또는 해군용지와 관련된 경우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이 협의하여 정하고 관련 부서에 고시하도록 했다. ‘요새지대의 폭원(幅員)은 방어조영물의 각 돌출부를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그 선에서 밖으로 일정 거리 이내’라고 명시했다.

제1구역은 중심지에서 250間(약 0.45km) 이내를 이른다. 제2구역은 중심지에서 750間(약 1.36km) 이내로 어로, 정박, 건조물 신설이 금지되었다. 제3구역은 중심지에서 2,250間(약 4km) 이내로 시찰을 위한 출입, 지표의 높이 변경 공사가 금지되었다. 이외에도 제1구역과 제2구역은 고도제한을 적용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석탄류, 신탄과 목재를 일정 이상 높이 쌓아두지 못하게 했다. 제방, 운하, 도로, 교량, 철도, 터널, 영구잔교 등을 신설 혹은 변경할 때도 육군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제2구역 내에서는 어로, 정박, 건조물 신설 등이 금지되고, 제3구역 내에서는 시찰을 위한 출입, 지표의 높이 변경 공사가 금지되었다.³⁰⁾

1915년 6월 19일 요새지대법을 일부 개정했다. 요새사령관의 허가사항, 요새구역 거리, 처벌에 관한 개정이었다. 첫째는 요새사령관의 허가

29) 일본 『官報』, 제4811호, 1898년 7월 15일, 「要塞地帶法」

30) 原剛·安岡昭南 編, 『日本陸海軍辭典』上, 新人物往來社, 2003. 177~178쪽.

사항이다. 요새사령관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요새지대 내 수륙의 형상을 측량, 촬영, 모사, 녹취하거나 요새지대 내 항공(航空)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항공은 요새사령관이 육군대신에게 요청하여 허가를 받도록 했다. 둘째는 요새구역 범위이다. 요새지대 제3구역 밖 3500間(약 6.3km) 이내의 구역에도 여러 제한이 적용되었다. 셋째는 처벌에 관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를 명시하여 처벌을 강화했다.³¹⁾

1924년 부산에도 요새지대법이 적용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24년 7월 ‘진해만요새지’로 부산항과 진해만을 설정했다. 요새지대 내에서 어로, 정박, 토사채취, 창고신설, 염전, 과수원, 경작지 등을 금지 혹은 제한했다.³²⁾ 이로 인해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이 생겨났지만, 요새지대 내의 생활터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요새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충분히 인식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위반 사례도 있었다.

요새지대의 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되자 부산헌병분대장 고목의지(高木義枝)는 부산일보를 통해 요새지대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 했다.³³⁾ 요새지대 단속은 헌병경찰관이 담당했다. 요새지대 내의 촬영, 제1구역 내 어업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산업시설도 해당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부산헌병대의 통계에 따르면 1930년 부산에서 요새지대법 위반수는 34건이었다. 그러나 이 위반수는 해마다 증가했다.³⁴⁾ 많은 사람들이 거

31) 일본 『官報』, 제865호, 1915년 6월 21일, 「要塞地帶法中改正」

32) 조선총독부, 『官報』, 1924년 7월 14일(제3575호), 「告示」

33) 부산일보, 1925년 9월 29일, 「요새지대법 위반자가 속출하는 데는 유감, 일반에게 주의하라」

34) 『釜山日報』, 1925년 2월 17일, 「要塞地帶法施行後の取締は却々困難」; 1925년 9월 19일, 「要塞地帶法違反者の續出は遺憾」; 1928년 1월 26일, 「頻發する要塞取り違反」; 1931년 1월 18일, 「要塞地帶違反件數昨年中廿四件」

주하는 상업주거지가 요새구역에 포함되자 일상의 통제에 대해 부산부민들의 반감이 컸다. 일본군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1934년 10월 3일 육군성 고시 37호에 의거 요새구역의 일부를 해제했다. 해제 구역에서는 헌병의 감시단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촬영, 모사, 녹취를 할 수 있게 되었다.³⁵⁾

부산의 요새지대가 대대적으로 확대된 것은 1940년이다. 전시체제 속에서 요새지대법은 대폭 수정되었다. 1940년 4월 2일 수정된 법의 가장 큰 변화는 요새 범위였다. 제1구역 250間(약 0.45km)을 1km, 제2구역 750間(약 1.36km)을 5km, 제3구역 2250間(약 4km)을 15km 이내로 개정했다.³⁶⁾ 요새사령관의 권한도 확대시켰다.

요새구역의 범위가 최대 4km에서 15km로 확대되면서 이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위반사례가 속출했다. 일본군은 요새지에 관한 책자를 만들어서 부산부민들에게 나눠주는 일도 여러 번 있었다. 유명한 관광지인 용두산공원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사진촬영을 허가 했다.³⁷⁾

부산에 군사지역이 들어서면서 생활의 불편함이 많았다. 부산 광안리에는 고사포해안사격장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정기적으로 포연습을 했다. 이때 어민들의 피해가 커서 군에서 일정금액을 보상하고 있었다.³⁸⁾ 부산에는 장자등, 영도, 기장에 포대가 있었다. 이 곳에서도 사격 훈련이 이루어졌다.³⁹⁾ 이외에도 사격연습으로 인해 항로를 방해해서 전시(戰時) 군사수송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⁴⁰⁾

35) 동아일보, 1934년 10월 7일, 「釜山要塞地帶 一部區域은 解除 瀛州町以北 解除 안돼」

36) 일본 『官報』, 제39715호, 1940년 4월 4일, 「要塞地帶法中改正」

37) 『釜山日報』, 1941년 4월 11일, 「要塞地帶内の撮影取締り強化」; 1941년 5월 4일, 「要塞地帶關係冊子頒布」

38) 釜山要塞司令部, 「廣安里射撃実施に関する覚書」, 『高射砲海岸射場』, 1942.(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3070034100).

39)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馬山·永興灣 羅津·麗水 重砲兵聯隊史』, 千創(東京), 1999, 117~118쪽.

40) 陸軍省 經理局, 「経建丙第1, 802号 釜山仁川高射砲射撃場の件 昭和17年10月3日」,

일본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은 요새지대법을 개정하자는 <요새지대법 중 개정에 관한 건>을 10월 8일 내각 총리대신에게 요청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간소화에 의해 육군대신의 허가권을 하급관청으로 이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1943년 11월 2일 요새지대법전시특례(要塞地帶戰時特例)에 따라 육군대신의 권한이 요새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⁴¹⁾ 요새사령부의 위상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작전 수행의 속도가 그만큼 빠르게 전개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부산요새사령부 설치와 군용지 확대

부산의 일본군 파견과 군사기지 구축은 일본이 조선에서 군용지 건설을 대규모로 시행한 시기에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러일전쟁 전후부터 10여년간, 두 번째는 제19사단, 제20사단의 상주를 위한 준비로 1915년부터 8년간, 세 번째는 중일전쟁 전후부터 1945년까지 대규모로 군용지를 확장한 시기이다.

첫 번째 조선에서 일본군 군용지 건설을 대규모로 시행한 것은 1904년 2월 ‘한일의정서’에 근거해 군사령부 1개, 사단사령부, 기타 부대를 조선에 주차하기 위한 건축이었다.⁴²⁾ 공사는 1906년 시작해서 8년간 진행했다. 1913년 현재 부산에는 육군운수부지부와 부산헌병대 건물을 건립했다. 부지는 1909년 수용했고, 총 2,038평이었다. 이때 육군운수부는 인천, 부산, 청진에 지부와 출장소를 두고 있었다.⁴³⁾ 그 후 부산수

『高射砲海岸射場』, 1942.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3070033100).

41) 内閣, 『御署名原本・昭和十八年・勅令第八六八号・要塞地帯戰時特例』, 1943.(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A03022876100)

42) 1896년 2월 현재 일본군의 병영부지 설립기준을 보면, 사단사령부는 3,600평, 사단사령부 위술병원병실 10,000평, 사단사령부 위술감옥 5,600평, 여단사령부는 900평, 歩兵連隊營은 40,000평, 기병연대영 16,000평, 야전포병연대영 41,000평, 경비대사령부 300평, 철도대 8,000평, 철도대 재료창 10,000평이었다. (松下孝昭, 『軍隊を誘致せよ』, 吉川弘文館(東京), 2014, 44~45쪽.)

비대가 상주하면서 군용지가 증가했다.

두 번째로 조선에서 대규모의 군용지 건설을 진행한 것은 1915~1922년이었다. 1915년 조선에 2개 상주사단 증설을 결정함에 따라 남의 제19사단, 용산의 제20사단을 중심으로 전국의 요지에 일본군 병영, 숙소, 관아, 연습장, 각 지역 수비대 주둔지를 건설했다.⁴⁴⁾ 1916~1921년 조선군 상주사단 제19사단과 제20사단의 배치를 완료한 직후 1921년 7월 현재 부산에는 제20사단 80연대 중 일부를 고정배치했다.⁴⁵⁾ 여기에 1924년 부산요새를 구축하면서 중포병연대 중 일부도 주둔했다. 러일전쟁 이후 가덕도 외양포에는 소수의 포병대가 계속 주둔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조선에서 군용지를 확대하고 군시설 건축을 시작한 것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였다.⁴⁶⁾ 1941년 진해만요새사령부를 부산으로 이전했다. 부산의 군사적 역할이 강화된 때문이었다. 일본은 대륙자원을 수송하는데 부산항과 철도를 이용했다. 1931년 만주사변, 1932년 만주국 탄생,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일본과 대륙간 군사수송량이 급증했다. 1936년 항만과 철도계획에 따르면 남해안의 부산, 여수 등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경부선과 경의선 보강이 제시되었다. 1937년 7월 시작된 중일전쟁은 끝나지 않았는데, 1941년 12월 일본은 진주만 공격을 감행했다. 부산항은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대륙과 일본을 이어주는 마지막

43) 朝鮮駐劄軍經理部 編, 『朝鮮駐劄軍永久兵營, 官衛及宿舍建築經過概要』, 1914.

44) 1915~1922년 군용지 건설에 관해 조선군 경리부에서 1923년 3월 『朝鮮師團營舍建築史』를 발행했다. 이 자료의 자세한 내용과 의미에 관해서는 조간·김천수·한동수, 「한국근대건축 연구자료 『朝鮮師團營舍建築史』에 관한 소개」, 『건축역사연구』22(1), 2013.)의 연구가 있다.

45) 陸軍省, 『朝鮮軍配置圖 大正10年7月31日に於ける』, 『朝鮮軍配置圖 大正10年7月』, 1921.(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3070085700).

46)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자료 중 「防衛省防衛研究所-陸軍一般史-滿洲-朝鮮」 조선에 관한 자료 340개 중 상당수가 군 관계 공사에 관한 설계도면이다. 대부분 1940년대 설계도로 이 시기 군 관련 시설을 대거 구축했을 것으로 보인다.

생명선이었다. 일본은 부산항과 대한해협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부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군사시설을 시급히 구축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시기 부산의 군사기지화가 가시화되었지만, 실제 계획은 중일전쟁 이전 이미 수립되어 있었다.⁴⁷⁾

군부대 주둔과 대륙수송의 중계지로 부산의 군사적 역할이 커지면서 부산부민들은 다양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부산 지역의 경제인과 권력자들은 군대유치운동을 벌였다. 일본의 경우 여러 지역에서 군대유치운동이 활발했다. 이것은 지역의 경제와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다.⁴⁸⁾ 1931년 부산상업회의소는 군대유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1931년 6월 대구에서 개최된 남선사단설치기성회(南鮮師團設置期成會)에 상업회의소 회두와 이사가 참석하여 “사단설치는 국방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월에는 ‘조선사단증설 군영설치기성회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대구와 제휴하여 부산에 군영을 설치하기 위한 운동을 보고했다. 관계당국에 제출한 <군영설치진정서>에 유치조건으로 기성회는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이것을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를 방문하여 진정할 것을 결정했다.

기성회에서는 부산이 군사 및 경제상 요지에 위치하므로 이를 감안해서 부산 부근에 군영을 설치하는 것을 희망하고, 부산항은 조선 내에 가장 뛰어난 항만설비를 갖추고 있어 조선과 그 외 지역 어디라도 신속히 연결할 수 있는 군사수송상의 요지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군용지로 부산이 최적지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⁴⁹⁾

1) 부산 교외에는 군영부지로 사용할 충분한 용지가 있고, 부산 배

47) 김윤미, 『제국 일본의 교통망과 부산항의 군사적 역할』, 『향도부산』 42, 2021 참고.

48) 松下孝昭, 『軍隊を誘致せよ』, 吉川弘文館(東京), 2014 참고.

49) 釜山商業會議所, 『釜山商業會議所 月報』74, 1931.6 ; 『釜山商業會議所 月報』80, 1931.12.

- 면의 낙동강유역 대평야는 군용 대연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 2) 부산은 육해 요충에 해당하여 일본·조선물자의 대집산지로 병참 용도 조달이 용이하다.
- 3) 상하수도 기타 위생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기후풍토는 일본 중 부방면과 큰 차이가 없을 뿐아니라 근교의 동래, 해운대 두 온천은 대규모 부대의 요양지로서 적합하다.
- 4) 교육기관이 충분하여 주재 군인 자제의 교육상 불편할 것이 없다.

이처럼 여러 이점을 제시하며 부산부와 부산상업회의소는 부대편성을 희망했는데, 군대를 유치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경제, 사회문제 등이 배경이었다. 1918년 ‘시베리아출병’ 사례를 보면 일본 육군은 8월 말~9월 중순 부산에 숙영하면서 지출한 금액이 20만원이라는 신문보도가 있다. 여관, 민간 숙영지, 음식점, 그 외 상점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⁵⁰⁾

한편으로 부작용도 많았다. 숙박비와 식사비가 지불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군인들이 많이 숙영하는 날에는 숙영지가 부족했고, 물가는 급상승했다.⁵¹⁾ 부산이 군수송 중계지가 되면서 부산부민들도 일본군과 관련한 생활이 일상이 되어 가고 있었다. 일본군은 가능한 부산부민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송군인들의 행동 단속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했다. ‘숙영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행되도록 지시를 했다.⁵²⁾

일본군은 수송 중 군기강을 세우는 것을 가장 우선했고, 지역 주민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단속해야 했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 ‘숙사

50) 『釜山日報』, 1919년 9월 22일, 「釜山に落ちた金 總額二十萬は下らぬ」

51) 坂本悠一, 「植民地期 朝鮮鐵道에 있어서 軍事輸送」, 『韓國民族文化』28, 2006, 153~157쪽 참고.

52) 朝鮮軍臨時兵站司令部, 「陣中日誌送付の件(17)」, 『昭和12年「陸支密大日記 第13号」』, 1937.(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4120126200).

내 특히 자녀 앞에서 병사들이 저급한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여 가정교육상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언동에 주의를 주고는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상가들도 피해를 입었다. 상점 앞에 보초를 서는 경우 일반인들이 공포를 느껴 손님이 오지 않는 것이었다. 군인들이 숙영한 지역에서는 각종 유언비어도 양산되고 있었다. 일부 군인들의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언동이 사실인 것으로 퍼지면서 일반인들의 동요가 일어난 적이 많았다.

군대의 숙영으로 부산부민들의 피로가 컸다. 재향군인회, 애국부인회, 국방부인회, 각 학교 학생들도 지속적으로 동원되었다. 재향군인회 각 분회와 청년단은 군대 숙영급양, 마계장 감시, 말먹이 교부 등을 지원했다. 애국부인회, 국방부인회, 고등여학교생도는 부산역 앞 군대집합소, 기차 출발지점, 제2잔교입구, 각 마계장 등에서 따뜻한 차를 배급했다. 숙영장으로 사용된 학교와 사원도 군대숙영시 차를 제공했고, 사원의 승려는 유골통과 시 위령식을 해주었으며 부산군사후원연맹은 부산 각 교화단체를 조직해서 군대위문 활동을 했다.⁵³⁾

1939년 3월 20일 조선군 임시병참사령부 부산지부에서 조사한 ‘중일전쟁 전후 매수한 부산부 내 육군용지 조사표’에 따르면 부산의 군용지를 조사하고 중일전쟁 직후 부산의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일본군용지에 포함된 곳은 감만리, 용당리, 범일정, 대신정, 온주정, 암남리, 동삼동의 임야와 도로가 있다.⁵⁴⁾ 대규모 병영 건설과 병참을 위한 창고와 시설 부지였다. 1945년의 시점에서 보면 감만리와 용당리는 군사지구, 대신정과 온주정은 부산요새사령부, 육군병사부 등 중요 군 행정기관이

53) 朝鮮軍 參謀部, 「内地動員部隊第3次鮮内鉄道輸送に伴う兵站業務実施詳報の件」, 『昭和12年「陸支機密大日記」第4冊 第7号 1/2』, 1937.(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1005666600).

54) 朝鮮軍臨時兵站司令部, 「朝鮮内鉄道輸送部隊輸送間に於ける兵站業務詳報の件(2)」, 『昭和14年「陸支受大日記」第37号』, 1939.(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4121101900).

위치한 곳이고, 암남리는 감천항을 방어하는 요새부대가 들어선 지역이다. 영도에 위치한 동삼동 역시 요새부대와 해군경비대가 들어서 있다. 1945 부산에 배치되었던 부대 및 인원은 <표 1>과 같다.

〈표 1〉 부산요새관구 배치 부대 및 인원(1945.8.15.직후)

장소	부대	인원	
부산	부산요새사령부	146	8,402
	부산요새중포병연대	510	
	독립혼성제127여단	3100	
	고사포제151연대	1124	
	독립자동차제299중대	151	
	독립자동차제301중대	149	
	부산병참부	295	
	부산육군운송통제부	71	
	부산육군병사부	83	
	부산지구사령부		
	부산육군병원	150	
	독립철도제12대대	699	
	제169정차장사령부	28	
	제155경비대대	566	
	제41경비대대	630	
	육상근무 제89중대	340	
	헌병부대	360	
마산	대구사관구 보병제2보충대	882	1,232
	마산중포병연대보충대	350	
관내전부	항공부대	5,781	5,781
합			15,415

출처: 陸軍省, 『朝鮮軍人馬自動車概數表』.(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3020868300).

1945년 부산에는 고사포부대, 독립혼성여단, 수송 및 지원부대, 노무 및 경비부대, 야전중포병부대가 배치되었다.⁵⁵⁾ 부산을 포함해서 울산

에서 부산, 그리고 삼천포를 잇는 부산요새관구(釜山要塞管區)에는 1945년 8월 15일 직후 군인 15,420명, 말 135필, 자동차 115대가 배치되었다. 이 중 부산지역에 배치된 인원은 부산요새관구 항공부대 5,781명을 제외하고, 8,402명이다. 진해요새사령관의 관할이었던 진해요새지는 부산요새사령부가 관할하는 부산요새관구로 재편되었다. 부산요새관구는 남해, 하동, 사천, 진양(진주), 고성, 통영, 함안, 창원, 김해, 양산, 울산, 동래, 부산 등을 작전구역으로 했다.

Ⅲ. 부산 주둔 일본군의 현황과 역할

1. 부산요새관구의 군정(軍政)과 병참

1945년 미군의 상륙이 임박해오자 일본은 본토결전(本土決戰)을 결의했다. 조선군사령부는 해제되고 1월 22일 제17방면군과 조선군관구사령부로 편제되었다. 4월 1일 유수 제19사단은 나남사관구, 유수 제30사단은 평양사관구, 유수 제20사단은 경성조선군관구로 변경되었다. 대구와 광주에도 사관구사령부를 신설했다. 나남사관구는 함경도, 평양사관구는 평안도와 황해도, 경성사관구는 경성·강원·충청도, 대구사관구는 경상도, 광주사관구는 전라도를 구역으로 했다. 요새별로는 부산요새관구, 여수요새관구, 나남요새관구, 영흥만요새관구를 편성하고 요새사령관이 그 지역의 부대를 지휘했다. 여수·나남·영흥만은 해당 지역을 작전구역으로 하고, 부산요새관구는 부산경남의 해안전체를 작전구역으로 하였다.⁵⁶⁾ 1945년 7월 부산에 배치된 조선군관구 예하 부대는

55) 宮田節子,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附表 第五 <特設警備部隊一覽表>.

56) 자료에 따르면 1945년 8월 15일 이후 남부지역의 사관구별 병력은 18만 명이었다. 경성사관구 57,110명, 대구사관구 13,480명, 광주사관구 34,710명, 부산요새관구

<표 2>와 같다.

〈표 2〉 부산에 배치된 조선군관구 예하 부대(1945.7.10.)

예속	부대명
조선군관구 (朝鮮軍管區)	부산병참부
	부산육군수송통제부
	조선군임시병참병마창(病馬廠)
	부산육군병원
	독립자동차 제299중대
	독립자동차 제301중대
	수상근무제78중대
	특설육상근무제106중대
	특설육상근무제108중대
	특설수상근무제109중대
	특설수상근무제110중대
	제1선박수송대 남선선박대
	대구사관구
	제155경비대대
	부산육군병참부
	부산지구사령부

출처 : 第十七方面軍 朝鮮軍管區 參謀部 『第17方面軍』, 『第17方面軍 朝鮮軍管區諸部隊 通称号所在地一覽表 昭和20年7月10日現在』,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2121093500).

조선군관구사령부는 제17방면군의 전투 준비를 지원하고, 대륙의 병력과 물자를 일본과 조선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조선군관구사령부는 대부분의 직속부대를 부산에 배치해 조선에서 수송의 중심을 부산에 두었다. 병참지구대, 병참수송기관, 보급기관, 위생기관, 기타 특수병참기관이 대표적이다. 병참기관은 경부선과 경의선 등 철도와 주요

15,420명, 여수요새관구 680명, 제주도 58,320명이었다. (陸軍省, 『朝鮮軍人馬自動車概数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3020868100).

도로를 중심으로 배치되었다.

조선군관구사령부의 병참부 본부는 부산에 두었다. 부산병참부는 1945년 2월 6일 임시 동원하여 3월 6일 부산병참부 편성을 완료했다.⁵⁷⁾ 부산병참지부는 대전·여수 경성, 부산병참출장소는 대구·천안에 배치했다. 부산병참부 예하 부대로는 독립자동차 제300중대의 일부, 독립자동차 제301중대를 배치했다.⁵⁸⁾

육군의 수송을 총괄하는 육군수송통제부도 부산에 두었다. 부산육군수송통제부는 1941년 4월 1일 편성된 부산육군수송통제부를 이른다. 이후 원활한 군사수송을 목표로 통제업무에 임했다. 1944년 4월 부산육군군수송통제부를 부산육군수송통제부로 개칭하고, 5월 부산요새사령관이 부장으로 겸임했다. 1945년 2월 나진에 출장소를 편성하여 청진, 원산, 여수 등에 분주반(分駐班)을 설치했다.⁵⁹⁾

부산육군수송통제부 예하에는 수품본창(需品本廠) 부산출장소, 병기(兵器)행정보부 부산출장소, 말먹이본창(糧秣本廠) 부산출장소, 피복본창(被服本廠) 부산출장소, 위생재료창(衛生材料廠) 부산출장소, 수의자재창(獸醫資材廠) 부산출장소를 두었다.⁶⁰⁾ 부산육군수송통제부 예하의 독립자동차 제299중대와 부산병참부 예하의 독립자동차 제301중대는 1945년 2월 13일 경성에서 편성하여 4월 23일 부산에 도착하여 부산육군수송통제부장의 지휘를 받았다.⁶¹⁾ 1944년 12월 22일부터 부산육군

57) 厚生省 援護局, 「6. 南韓方面部隊」, 『南方·朝鮮(南韓)方面 陸上部隊略歴(航空·船舶部隊を除く) 第5回追録』, 1968.(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2122500700).

58) 厚生省 援護局, 「15. 南韓方面部隊」, 『南方·支那·台灣·朝鮮(南韓)方面 陸上部隊略歴(航空·船舶部隊を除く) 第3回追録』, 1964.(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2122497300).

59) 厚生省 援護局, 「6. 南韓方面部隊」, 『南方·朝鮮(南韓)方面 陸上部隊略歴(航空·船舶部隊を除く) 第5回追録』, 1968.(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2122500700).

60) 復員局, 「第2節 満洲の国防軍需産業の特質と兵站との関係」, 『満洲に関する用兵的觀察 第7巻 第4編 満洲に於ける各種作戰の史的觀察 第3章 兵站 昭和9~20年』, 1952.(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3010243200).

61) 厚生省 援護局, 「朝鮮(南韓)方面陸上部隊(4)」, 『朝鮮(南韓)方面陸上部隊略歴(航空船

수송통제부장 예하에 특설육상근무 제105·제106·제107·제108·제109·제110중대를 편입시켰다.⁶²⁾

일본 육군의 해상수송을 담당하는 선박부대도 있었다. 선박부대는 통칭 ‘아카츠키(曉)’부대로 불렸다. 중일전쟁 시작부터 상륙작전 전문 부대로 독립공병연대를 편성하고, 대형선박의 양육·탑재·지국의 수로수송을 담당할 정박장사령부(碇泊場司令部)를 편성했다. 또한 선박관계 부대를 총괄할 선박수송사령부를 편성했고, 선박의 호위 등을 위해 선박포병부대, 선박통신부대 등도 편성했다.⁶³⁾

1945년 부산을 포함한 조선 남부지역의 수송과 항만운영의 실무를 담당한 기관은 남선선박대였다. 남선선박대는 수송업무(물자수송, 군인과 군수품 수송), 선박 및 항만운영(선박수리 및 정비보급, 선원관리), 항만 호위·방공대책의 임무를 맡았다. 부산·마산·여수·목포·제주도에 배치된 남선선박대는 조선 남해안의 수송을 주로 했다. 그 외 울릉도·묵호항·포항·울산·군산·인천·경성·해주·검이포·진남포 9곳에는 출장소를 두었다. 북선선박대는 나진·청진·원산에 배치했다. 남선선박대의 예하 부대로는 수상근무대, 특설육상근무대, 육상근무대, 해상수송대, 기뢰감시대 등을 두었다.⁶⁴⁾

2. 부산항 방어를 위한 전투병력 배치

소련에 대한 작전을 임무로 한 부대인 관동군과 조선주둔 일본군의 일부를 남태평양으로 투입을 결정한 시기는 1942년 가을이었다. 이때

船舶部隊を除く), 1963.(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2122491000).

62) 大本營 陸軍部, 『命 卷18(1)』, 『大陸命綴(大東亞戰爭)』卷18 昭19.12.09~20.02.09(第1201~1250号), 1944.(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4060912700).

63) 防衛廳防衛研究所 戰史室, 『戰史叢書46, 海上護衛戰』, 朝雲新聞社, 1971, 467~472쪽.

64) 노기영, 「日帝末 戰時海運과 釜山港 關聯 資料疏概」, 『항도부산』 21, 2005, 35, 42쪽.

조선의 주력군이었던 제19사단과 제20사단도 우수사단으로 재편했다. 1943년 1월 제20사단은 부산을 거쳐 뉴기니아로 출정했고, 8월 제19사단은 나남에 주둔하도록 하고, 별도 혼성101연대를 신설하여 경흥 하류 두만강 지구의 방어진지를 수비하게 하였다. 1944년 상황이 긴박해지면서 제19사단도 중부태평양과 필리핀으로 출정했다. 1943년 8월 평양에 신설된 제30사단은 1944년 5월 필리핀으로 출정했다.⁶⁵⁾

정규 병력이 전장으로 재배치되면서 조선 내의 방위 공백이 심각했다. 1942년 4월 미군의 일본 첫 공습이었던 돌리틀공습 이후, 일본 육군은 방위태세를 정비하고 방공과 기습상륙전에 대응하기 위해 연안경비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병력으로 재향군인들을 동원했다. 처음에는 요새수비병으로 동원했다가 1943년 6월 새로운 편제로 특설경비대를 창설했다.⁶⁶⁾

조선철도경비에 사용할 병력은 제19사단·우수 제20사단·제30사단·부산요새 사령관이 정한 부대에 증가 배속시키고, 경비요원 중 약 4,500명을 철도연선에 편성배치 했다.⁶⁷⁾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1943년 8월 특설경비부대를 창설했다. 1944년 들어서는 연안경비 강화를 위해 연안요지에 군대를 파견했는데, 특설경비부대의 주력을 연안경비로 전이했다. 1944년 1월 새로운 종류의 특설경비대로 공습피해를 받은 비행장 복구 등을 임무로 하는 특설경비공병대도 편성했다.⁶⁸⁾ 부산요새에는 연안과 항만을 경비하는 특설경비대와 해운대·사천비행장 복구를 위해 파견된 특설경비공병대가 편성되었다.⁶⁹⁾

65) 하종문, 「중일전쟁 이후 조선군의 실상」, 『일제 식민지 지배의 구조와 성격』, 경인문화사, 2005, 332~334쪽.

66) 防衛廳防衛研修所 戰史室, 『戰史叢書51, 本土決戰準備(1)』, 朝雲新聞社, 1971, 58~59, 254쪽.

67) 大本營 陸軍部, 『指 卷7 第1560号~1600号』, 『大陸指綴(大東亞戰爭)卷07 昭17.10.09~18.09.26(第1306~1600号)』, 1943.(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4060928900).

68) 宮田節子,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49~52, 455~458쪽.

1945년 본토결전에 따라 정규 전투병력이 부산에 보강 배치되었다. 1945년 7월 부산에 배치된 제17방면군 예하 부대는 <표 3>과 같다.

〈표 3〉 부산에 배치된 제17방면군 예하 부대(1945.7.10.)

예속	부대명(편성년월일)	
제17방면군	제37야전기동대	
		제37야전기동대본부
		육상기동제173중대
		육상기동제174중대
		육상기동제175중대
		육상기동제214중대
		육상기동제218중대
	부산요새수비대	
		부산요새사령부(1941.7.16.)
		부산요새중포병대(1942.10.5.)
		고사포제151연대(1945.2.11.)
		제41경비대대(1944.3.13.)
		제406특설경비공병대(1944.10.6.)
		제37항공정보대 제8감시대
		독립혼성127여단
	제120사단 보병제259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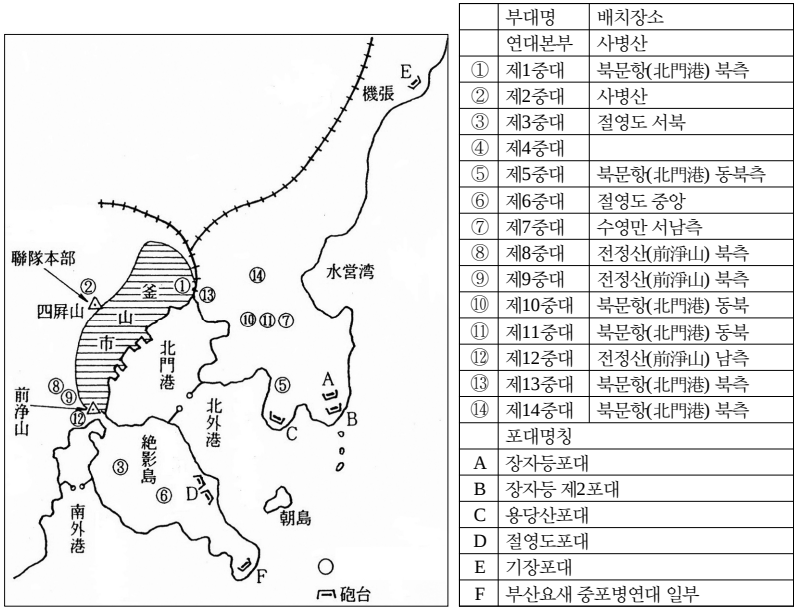
출처: 第十七方面軍 朝鮮軍管區 參謀部 『第17方面軍』, 『第17方面軍 朝鮮軍管區諸部隊 通称号所在地一覽表 昭和20年7月10日現在』,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2121093500).

제120사단 보병제259연대는 1945년 5월 요새수비강화를 위해 부산 요새사령관의 지휘 하에 들어갔다. 또 임시편성된 독립혼성 제127여단이 7월 20일 경성에서 부산으로 파견되어 부산요새사령관의 지휘 하에 들어가 관구 내 연안방어 및 포대수비에 임했다. 부산요새중포병대와

69) 厚生省 援護局, 『朝鮮(南鮮)方面陸上部隊(2)』, 『朝鮮(南鮮)方面陸上部隊略歴(航空船舶部隊を除く)』, 1963.(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2122490800).

고사포 제151연대는 방위부대였다. 중포병대는 러일전쟁을 위해 1905년 가덕도에 요새를 구축하고 파견한 부대였다. 이후 마산으로 본부를 이전하고, 진해만과 부산항 방어를 맡았다.

〈그림1〉 부산요새 중포병연대와 제151고사포연대 배치도(1945)



출처 :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馬山·永興灣 羅津·麗水 重砲兵聯隊史』, 千創, 1999, 106쪽.

1924년부터 구축한 부산의 장자등요새, 1937년 전후로 구축한 영도·기장·지심도에 중포병연대를 배치했다.⁷⁰⁾ 조선군 경리부는 1942년 6월 부산 제1호 공사로 방공대, 중포병대, 조공대, 감시대를 추가로 배치하기 위해 35곳에 공사를 계획했다.⁷¹⁾ 1945년 현재 부산항을 방위하는 부

70)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馬山·永興灣 羅津·麗水 重砲兵聯隊史』, 千創(東京), 1999, 98, 101~102쪽.

대의 배치는 <그림1>과 같다.

부산항을 둘러싸고 있는 ①~⑭는 고사포부대의 배치현황이고, A~F는 포대를 중심으로 배치된 중포병연대이다. 제151 고사포연대의 배치를 보면 연대본부는 사병산에 두고, 제1중대~제14중대로 부산항을 에워싸고 방어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부산요새중포병연대도 제1중대~제6중대 996명을 장자등, 절영도, 외양포, 지심도에 배치하여 해안을 방어하도록 했다. 부산에 배치한 제151연대는 1941년 편성했던 방공 제41연대를 개칭한 것이다. 1941년 7월 ‘관특연(關特演)’ 실시에 따라 조선해협의 안전확보를 위해 7월 16일 일본에서 독립고사포 제23중대를 편성하여 부산요새사령관의 지휘 하에 부산지구 방공을 담당하도록 하고, 1941년 11월 8일 남방작전준비의 일환으로 조선군에 방공 제41연대, 제42연대를 편성했다.⁷²⁾

3. 방공(防空)을 위한 항공대 배치

1944년 중반부터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 본격적으로 미군 항공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초기에는 정찰 목적의 비행이 많았으나, 10월 말부터는 실질적인 공습피해가 발생했다. 10월 25일 중국에서 발진한 B29가 제주도와 규슈(九州) 일대에 출현했고, 피해가 있었다.⁷³⁾ 일

71) 朝鮮軍 經理部, 『釜山第1号工事設計圖』, 『諸工事設計書 NO.25 昭和17年7~8月』, 1942.(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3020827600).

72) 제151연대는 1941년 11월 16일 軍令陸 제80호에 따라 방공 제41연대로 편성되어 11월 23일 부산에 배치되었다. 1944년 4월 16일 軍令陸甲 제45호에 따라 고사포 제151연대로 칭호를 변경했다. 1945년 5월 20일 연대 일부는 부산을 출항하여 5월 26일 제주도에 상륙하여 제58군사령관의 지휘 아래에서 제주도를 수비했다.(厚生省 援護局, 『朝鮮(南鮮)方面陸上部隊(2)』, 『朝鮮(南鮮)方面陸上部隊略歴(航空船舶部隊を除く)』, 1963.(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2122490800).

73) 조건, 『전시체제가 조선 주둔 일본군의 防空 조직과 활동』, 수요역사연구회, 『제국 일본의 하늘과 방공, 동원 1』, 선인, 2012, 130~139쪽 참고.

본군은 10월 관동군 독립비행 제66중대를 군산과 해운대 및 목포에 전속배치하면서 선단엄호 및 초계임무를 시작했다.⁷⁴⁾

1945년 4월 8일 <결호작전 준비요강>에 따라 항공부대는 상륙하는 적 수송선단 공격, 적의 공습에 대한 작전 준비, 항공기지 강화, 비닉비행장⁷⁵⁾ 건설 등 전력 보전과 축적을 시작했다. 또한 <결호작전에 따른 항공작전지도요강>에 따르면 6월까지 항공작전 준비를 완료하도록 했다. 제5항공군은 조선으로 전용되고, 일부는 지나파견군 예하부대로 남겨두었다.⁷⁶⁾

제5항공군은 조선의 북부, 중부, 남부로 편성되어 있었다. 북부 신의주·평양·온주정비행장에 배치된 항공부대는 8비행단(FB)이고, 중부 경성·수원·용산비행장에 배치된 항공부대는 1비행단(FB)이다. 대전과 대구비행장을 근거지로 하여 조선 남부지역의 비행장에 배치된 항공부대는 2비행단(FB)이다. 제5항공군사령부의 주력은 경성에, 일부는 밀양에 배치하고, 제5항공군통신사령부 주력은 삼랑진에 배치했다. 또한 실질적인 항공 전력인 비행전대는 대전, 대구, 울산, 사천을 근거지로 편성했다.⁷⁷⁾ 비행장은 경의선·경부선이 위치한 지역에 편성되어 있고, 울산·해운대·사천·목포·군산 등 조선 남부 지역의 중요 수송항에 밀집해 있다. 이것은 철도와 항만, 그리고 ‘조선해협’을 방어하기 위한 항공부대의 배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에 구축한 비행장은 1945년 초순경에는 일본항공부대의 대미작전을 위한 후방기동비행장, 또는 일

74) 宮田節子,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147~149쪽.

75) 陸空-本土防空-20, 北九州防空配備要圖 昭17.4.9.(防衛廳防衛研修所)

1942년 4월 현재 예비성격의 비닉비행장은 금호, 밀양, 진주, 담양, 목포비행장이다.

76) 防衛廳防衛研修所 戰史室, 『戰史叢書82, 大本營陸軍部(10)』, 朝雲新聞社, 1975, 241~242쪽.

77) 조건, 「전시체제가 조선 주둔 일본군의 防空 조직과 활동」, 수요역사연구회, 『제국 일본의 하늘과 방공, 동원 1』, 선인, 2012, 125쪽 <표5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별 일본군 항공부대 현황> 참고.

본과 대륙 연락을 위한 항공로용 비행장으로 사용되었지만, 작전비행장으로서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⁷⁸⁾

〈표 4〉 부산요새관구 내 일본군 항공부대 현황

울산	제8비행단사령부, 제16비행전대, 제223비행장대대, 제7야전항공수리창Ⅱ, 제305독립정비대, 제170야전비행장설정대, 제4기상연대 본부
밀양	제5항공군사령부 일부, 제1활공비행전대, 제103비행장중대, 제225비행장대대 일부, 제176야전비행장설정대
삼랑진	제5항공통신사령부 주력, 조선항공로관구
부산	제48항공지구사령부, 오사카 야전항공하급소 출장소
해운대	제206독립비행대, 제1독립비행중대, 제66독립비행중대 잔여부대, 제225비행장대대, 제166야전비행장설정대, 제189독립정비대
진주	제1비행단사령부, 제2비행장중대
사천	제22·25·85비행전대, 제145비행장대대, 제7야전항공수리창Ⅰ, 제162독립정비대

출처 : 防衛廳防衛研修所, 『航空部隊配置要圖(1945.8.31.)』, 『在南鮮日本軍部隊概況報告』. (조진, 「전시체제기 조선 주둔 일본군의 防空 조직과 활동」, 수요역사연구회, 『제국 일본의 하늘과 방공, 동원 1』, 선인, 2012, 126쪽 재인용)

<표 4>에서 신설로 구분한 1942년 4월 비닉비행장으로 설정했던 해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조선 남부지역에 설정했다. 대구비행장의 예비비행장은 금호비행장, 울산과 해운대의 예비비행장은 밀양비행장, 사천비행장의 예비비행장은 진주비행장이라 할 수 있다. 적의 상륙이 예상되었던 고성에는 진주비행장이 있어 여수·순천까지 담임했던 것으로 보인다.⁷⁹⁾ 1945년 경상남도를 작전구역으로 했던 부산요새관구에 배치된

78) 防衛廳防衛研修所 戰史室, 『戰史叢書19, 本土防空作戰』, 朝雲新聞社, 1971, 576쪽.

79) 陸軍省(K.R.O), 「3 飛行場及施設」, 『順天麗水宝城地区兵要地理』, 1950, 防衛省防衛研究所(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3070029200). 여수·순천·보성지구 병비에 진주비행장과 사천비행장의 현황과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

항공병력은 5,781명이었다.⁸⁰⁾ 해군비행장은 김해 낙동강 하구, 포항 영일만에 위치해 있었다.⁸¹⁾ 이때 부산에도 비행대가 편성되고 해운대 비행장을 중심으로 주둔했다. 1945년 8월 현재 경남지역에 배치된 항공부대는 <표 4>와 같다.

결호작전을 통해 병력을 증원했지만, 미군의 군사력을 막을 수는 없었다. 1945년 7월 동해 연안의 모든 항구는 기뢰가 투하되면서 사용불가능하게 되었고, 조선의 항구도 점차 폐쇄되었다. 미군의 공습도 1944년 6월 기타규슈(北九州) 지역을 시작으로 1944년 말 이후에 일본 본토 전역을 초토화했다. 조선은 1945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함경도 나남, 청진, 홍남, 원산, 마산, 부산, 여수 등 공업도시와 항만도시를 공습 피해를 입었다. 공장과 항만에 대한 공습과 기뢰 투하가 있었고, 제주도와 남부 해안에 대한 기총소사가 행해져 통신시설과 철도 교량, 공장이 파괴되었다.⁸²⁾ 그러나 일본 본토에 비한다면 조선의 공습은 산발적이었고, 지역도 제한적이었다.⁸³⁾

IV. 맺음말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부산에는 일본군이 집중 배치되고, 군사시설 구축도 급속히 진행되었다. 일본과 대륙을 연결하는 대한해협과 부산항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 부산에 배치된 일본군 중 가장 먼저 연산되는 것

80) 陸軍省, 『朝鮮軍人馬自動車概数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3020868100).

81) 第2復員局, 『釜山航空基地』, 『鎮海警備府 引渡目録』,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8010531900).

82) 宮田節子,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56쪽·102~103쪽.

83) 정혜경, 「일제말기 『매일신보』 기사로 본 방공정책 프로파간다 양상」, 수요역사연구회, 『제국 일본의 하늘과 방공, 동원 1』, 선인, 2012, 참고.

은 부산요새사령부이다. 부산요새사령부라는 명칭은 1942년 탄생했다. 진해만요새사령부가 1941년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개칭한 것이다.

요새사령부는 영구방어시설로 각 요새에 사령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평시에는 행정기관의 기능을 하지만 전시에는 요새 내의 부대 지휘소로 재편된다. 요새가 건설된 1924년부터 부산은 요새지대법 적용 대상이 되었고, 1940년 요새지대는 반경 4km에서 15km로 확대되었다. 1945년 부산요새사령부는 경남해안을 아우르는 부산요새관구를 담임했다. 부산에 구축한 일본군의 군사기지는 형태는 요새(要塞)와 요지(要地)였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거점 중심의 요새를 먼저 구축했다. 그런데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는 요새지점만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광범위하게 방어하는 군사적 체계를 갖추어야 했다. 일본군은 1937년 중일전쟁을 전후해서 부산을 중심으로 부산요새관구에 대규모 군사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부산요새관구에는 1945년 항공대를 포함하지 않으면 1만 여명의 일본군이 배치되어 있었다. 미군의 상륙을 대비하는 본토결전 시행으로 군사력을 집중 강화한 결과였다.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은 조선군관구사령부라는 군정부대와 제17방면군이라는 전투부대로 나누었다. 조선군관구사령부는 제17방면군의 전투 준비를 지원하고, 대륙의 병력과 물자를 일본과 조선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수송병참과 관계된 대부분의 직속부대를 부산에 배치해 수송의 중심을 부산에 두었다. 1945년 제5항공군의 실질적인 항공 전력인 비행전대를 조선 남부에 편성하고, 경의선과 경부선 인근과 남부 지역의 중요 수송항에 밀집시켰다.

부산이 요새지대법의 적용을 받고, 군사기지화되어 가면서 부산의 도시공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요새지대로 설정된다는 것은 일본군의 관리체계에 들어가며 여러 방면에서 제한과 통제가 시작됨

을 의미했다. 군사기밀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인을 대상으로 군기보호법이 적용되고, 일반민을 대상으로 요새지대법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어업이나 거주 공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이 생겨나고, 요새지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도 계속 증가했다. 한편으로 1931년 부산상업회의소를 중심으로 시도했던 군대유치운동은 적극적인 지역 사회의 반응이었다. 일본의 경우 여러 지역에서 군대유치운동이 활발했다. 이것은 지역의 경제와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 글은 부산에 남아 있는 일본군 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규명을 시도한다는 점, 부산이라는 지역의 군사적 성격을 밝힌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했다. 나아가 근대와 현대의 단절과 연속성 논의에도 작은 시사점이 된다면 영광이겠다. 부산은 일제시기 군사수송과 병참기지로 역할하고, 해방 이후에도 미군이 주둔했으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군의 군수사령부가 배치되었다. 일본군이 철수한 자리에 미군이 배치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부산이라는 지역의 역사성과 군사적 성격의 요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즉 한국사에서 1945년은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기점이지만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이글에서 검토하지 못한 부산의 개별 군사기지의 실태와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또한 부산의 군사시설 구축에 동원된 조선인들에 대한 연구도 향후 과제로 삼겠다.

| 참고문헌 |

- 김경남, 『일제말 전시체제기 부산 시가지계획의 전개와 그 특질』, 『지역과 역사』 20, 2007.
 _____, 『1930·40년대 전시체제기 부산 시가지계획의 군사적 성격』, 『한일관계사연

- 구』 34, 2009.
- 김윤미, 「일제시기 일본군의 방어체계와 부산의 요새」, 『군사』 85, 2012.
- _____, 「‘조선군 임시병참사령부’의 부산 숙영 시행과 지역 변화」, 『역사와경계』 109, 2018.
- _____, 「제국 일본의 교통망과 부산항의 군사적 역할」, 『항도부산』 42, 2021.
- 노기영, 「日帝末 戰時海運과 釜山港 關聯 資料疏概」, 『항도부산』 21, 2005.
- 수요역사연구회, 『제국 일본의 하늘과 방공, 동원 1』, 선인, 2012.
- 신주백, 「1945년 한반도 남서해안에서의 ‘본토결전’ 준비와 부산 여수의 일본군 시설지 현황」, 『軍史』 70, 2009.
- 임종국, 『日本軍의 朝鮮侵略史』 I, 일월서각, 1989.
- 조건, 「전시 총동원체제기 조선 주둔 일본군의 조선인 통제와 동원」,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조건·김천수·한동수, 「한국근대건축 연구자료『朝鮮師團營舍建築史』에 관한 소개」, 『건축역사연구』 22(1), 2013.
- 하종문, 「증일전쟁 이후 조선군의 실상」, 『일제 식민지 지배의 구조와 성격』, 경인문화사, 2005.
- 加藤圭木, 「日露戦争以降の朝鮮における軍事基地建設と地域—永興灣を対象として—」, 一橋大学大学院社会学研究科編, 『一橋社会科学』 5, 2013.
- 宮田節子,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 防衛廳防衛研修所 戰史室, 『戰史叢書19, 本土防空作戰』, 朝雲新聞社, 1971.
- 防衛廳防衛研修所 戰史室, 『戰史叢書46, 海上護衛戰』, 朝雲新聞社, 1971.
- 防衛廳防衛研修所 戰史室, 『戰史叢書51, 本土決戰準備(1)』, 朝雲新聞社, 1971.
- 防衛廳防衛研修所 戰史室, 『戰史叢書82, 大本營陸軍部(10)』, 朝雲新聞社, 1975.
- 松下孝昭, 『軍隊を誘致せよ』, 吉川弘文館, 2014.
- 原剛·安岡昭南 編, 『日本陸海軍辭典』上, 新人物往來社, 2003.
- 淨法寺朝美, 『日本築城史』, 原書房, 1971.
-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馬山·永興灣 羅津 麗水 重砲兵聯隊史』, 千創, 199.
- 坂本悠一, 「植民地期 朝鮮鐵道에 있어서 軍事輸送」, 『韓國民族文化』 28, 2006.
- 坂本悠一, 「戰時体制期における近代都市釜山開發の植民地的特性」, 『經營經濟論集』 18-1, 2011.

- 内閣,『御署名原本・明治二十八年・勅令第三十九号・要塞司令部条例』,『御署名原本・明治二十八年・勅令第三十九号・要塞司令部条例』,189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A03020198800).
- 大本営 陸軍部,『命 卷18(1)』,『大陸命綴(大東亜戦争)』卷18 昭19.12.09~20.02.09 (第1201~1250号),1944.(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4060912700).
- 大本営 陸軍部,『指 卷7 第1560号~1600号』,『大陸指綴(大東亜戦争)』卷07 昭17.10.09~18.09.26(第1306~1600号),1943.(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4060928900).
- 陸軍省 経理局,『経建丙第1, 802号 釜山仁川高射砲射撃場の件 昭和17年10月3日』,『高射砲海岸射撃場』,1942.(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3070033100).
- 陸軍省,『朝鮮軍人馬自動車概数表』.(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3020868100).
- 復員局,『第2節 満洲の国防軍需産業の特質と兵站との関係』,『満洲に関する用兵的觀察 第7巻 第4編 満洲に於ける各種作戦の史的觀察 第3章 兵站 昭和9~20年』,1952.(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3010243200).
- 釜山商業會議所,『釜山商業會議所 月報』74,1931.6.
- 釜山商業會議所,『釜山商業會議所 月報』80,1931.12.
- 釜山要塞司令部,『廣安里射撃実施に関する覚書』,『高射砲海岸射撃場』,1942.(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3070034100).
- 陸空-本土防空-20,北九州防空配備要圖 昭17.4.9.(防衛廳防衛研修所)
- 陸軍省(K.R.O),『3 飛行場及施設』,『順天麗水宝城地区兵要地理』,1950.(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3070029200)
- 陸軍省,『朝鮮軍配置図 大正10年7月31日に於ける』,『朝鮮軍配置図 大正10年7月』,1921.(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3070085700).
- 第2復員局,『釜山航空基地』,『鎮海警備府 引渡目録』.(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8010531900).
- 朝鮮軍 経理部,『釜山第1号工事設計画』,『諸工事設計書 NO.25 昭和17年7~8月』,1942.(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3020827600).
- 朝鮮軍 参謀部,『経建丙第1, 802号 釜山仁川高射砲射撃場の件 昭和17年10月3日』,『高射砲海岸射撃場』,1942.(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3070033100).
- 朝鮮軍 参謀部,『内地動員部隊第3次鮮内鉄道輸送に伴う兵站業務実施詳報の件』,『昭和12年陸支機密大日記 第4冊 第7号 1/2』,1937.(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1005666600).

- 朝鮮軍臨時兵站司令部, 「朝鮮内鉄道輸送部隊輸送間に於ける兵站業務詳報の件(2)」, 『昭和14年「陸支受大日記」 第37号』, 1939.(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4121101900).
- 朝鮮軍臨時兵站司令部, 「陣中日誌送付の件(17)」, 『昭和12年「陸支密大日記」 第13号』, 1937.(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4120126200).
- 朝鮮軍司令部, 『朝鮮軍歴史』4, 1932.(陸軍省, 「朝鮮軍歴史(第4巻)送付の件」, 『密大日記』, 1933.(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1004005200)
- 朝鮮駐箚軍經理部 編, 『朝鮮駐箚軍永久兵營, 官衛及宿舍建築經過概要』, 1914.
- 厚生省 援護局, 「15.南鮮方面部隊」, 『南方・支那・台灣・朝鮮(南鮮)方面 陸上部隊略歴(航空・船舶部隊を除く) 第3回追録』, 1964.(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2122497300).
- 厚生省 援護局, 「6.南鮮方面部隊」, 『南方・朝鮮(南鮮)方面 陸上部隊略歴(航空・船舶部隊を除く) 第5回追録』, 1968.(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2122500700).
- 厚生省 援護局, 「朝鮮(南鮮)方面陸上部隊(2)」, 『朝鮮(南鮮)方面陸上部隊略歴(航空・船舶部隊を除く)』, 1963.(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2122490800).
- 厚生省 援護局, 「朝鮮(南鮮)方面陸上部隊(4)」, 『朝鮮(南鮮)方面陸上部隊略歴(航空・船舶部隊を除く)』, 1963.(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2122491000).

투고일 : 2022. 05. 15. 심사완료일 : 2022. 06. 26. 게재확정일 : 2022. 07. 14.

| Abstract |

The Asian-Pacific War and Busan's Military Base

Kim, Yun-Mi

This article examined the process of Busan's military base from before and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to 1945. During the Pacific War, Japanese troops were concentrated in Busan, and military facilities were built rapidly. Starting with a review of the Busan Fortress Command, which comes to mind first when it comes to the Japanese military stationed in Busan, it analyzed the meaning of the fortress, the mission of the fortress command, and the background and role of the Busan Fortress Command. Next, the current status and role of the Japanese military stationed in Busan during the Pacific War was examined, and the impact of such military base on the Busan community was examined.

The Japanese military and military facilities stationed in Busan were intended to defend the Korean Strait and the port of Busan, which connects Japan and the continent. After the fortress was built in Busan in 1924, large-scale fortresses and military facilities were built around 1937. Only Jinhae in 1941 Starting with the relocation of the new command to Busan and the renaming of the Busan Fortress Command in 1942, about 10,000 soldiers were stationed in Busan until 1945. Accordingly, the military zone continued to expand and create a close network with the local community.

Key Words : Busan Fortress Command, War Heritage, Japanese Army, Russo-Japanese War, Sino-Japanese War, Urban Planning